

‘은유·상상’ 흑백사진에 투영된 러시아의 속살

광주 롯데갤러리가 국내 최초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현대 사진가 12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사진전을 마련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특별기획전 ‘러시아현대사진전’이 그것.

전시에는 러시아 현대사진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동유럽을 대표하는 사진기획자이자 평론가인 이리나 츠미레바(Irina Chmyreva)와 서울포토 디렉터인 강철이 참여했다.



그레고리 마이오피스 작
taste for russian ballet. from the series proverbs(러시아 발레에 대한 취향. 속담시리즈)

러시아대표 사진작가 작품 한자리에 광주롯데갤러리 러시아 현대사진전

이들은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러시아의 주요 현대작가를 4개 도시에 걸쳐 선정했다. 올라 토브렐루츠, 니키타 피로고프, 표도르 라흐마노프, 그레고리 마이오피스, 안드레이 체친 등이다.

갤러리에서는 이들의 작가적 은유와 상상이 섞인 러시아의 독특한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개념예술가 안드레이 체친(Andrey Chezhin)은 인물의 얼굴이 사무용 핀이나 못 등의 이미지로 지워진 흑백 사진을 통해 ‘개인은 국가라고 하는 기계의 한 톱니일 뿐’이라는 스탈린의 연설을 비롯한 정치적 이념에 대한 작가적 시각을 드러낸다. 마리아 코자노바(MARIA KOZHANOVA)는 시리즈 작품 ‘거리두기를 선언하다’로 고도로 조직화된 러시아 사회와 확립된 정체성이 붕괴된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변한다.

또 바딤 구션(Vadim Gushin)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을 어디에도 없는 비상황적인 공간에 노출시킨 이미지를 포착, 현실과 상상의 사이를 확인시켜주며 사진의 본질과 심



니콜라이 콜레비야킨 작
‘no title. from the series of portraits(무제)’

미성 등을 이야기한다.

롯데갤러리 관계자는 “기존 소개 정도에 머물렀던 러시아 사진을 넘어서 올라 토브렐루츠, 니키타 피로고프, 표도르 라흐마노프, 그레고리 마이오피스, 안드레이 체친 등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선정된 12명의 작가의 은유와 상상이 섞인 러시아의 사진형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221-1808.

/오경은 기자 white@kdaily.com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美 특별전’ 반출 불허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의 미국 전시가 불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오는 10월29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 전시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목록 중에서 금동반가사유상 등 3건 3점을 제외한 반출허가 목록 18건 23점을 확정해 지난 29일자로 박물관에 공식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박물관에 보낸 ‘국가 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공문서에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 결과’를 들어 이같이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미국 전시에 국보 제79호 경주 구황동 출토 금제여래좌상을 비롯한 국가 지정 문화재 18건 23점을 대여하게 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은 문화재위원회가 이미 반출 허가를 심의한 내용을 반출 허가의 최종 허가권이 있는 문화재청장이 뒤집은 데다가 문화재위 심의 내용을 두고 박물관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인예술시장 작가들의 새로운 도전

협동조합 결성 ‘갤러리 다다’ 통해 판매 유통...경제적 자립 모색

대인예술시장 작가들이 자립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작가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작품제작과 판매, 유통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로 한 것. 그 첫 시범단은 ‘갤러리 다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야시장과 별개로 예술인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야시장을 개최하기로 했다.

대인예술시장작가협의회 ‘다다’(회장 이기성·이하 다다)는 30일 오후 5시 옛 ‘다다익선’ 자리에 ‘갤러리 다다’를 정식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갤러리 다다’에서는 ‘다다’ 회원 20여명의 작품과 대인예술야시장에서 검증된 인기상품들을 엄선해 전시와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다다’는 이를 위해 옛 ‘다다익선’을 작품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갤러리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다다’는 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2013아시아문화활성화 거점프로그램 운영사업단 ‘무들



대인시장에 위치한 ‘갤러리 다다’.

마루’(이하 무들마루)가 진행하는 예술야시장과 별개의 야시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작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일반인들과 작가들의 야시장 수요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기성 ‘다다’회장은 “대인예술시장 작가들이 그동안 예술야시장과 예술공장, 장플랭이 선물 가게를 공동운영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며 “향후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예술인공동체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시장상인들에게 공구를 대여해주고 출장 서비스와 설터역할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다다익선’은 퇴장하고 그 기능의 일부는 예술 공장으로 이관된다.

/오경은 기자 white@kdaily.com

기고

송헌

〈한국음악연구소장〉

호남의 대표적인 노래는 ‘진도 아리랑’이다. 진도아리랑의 첫 소절 ‘문경세재는 웬 고갱가’라는 가사에서 ‘문경세재’는 본래 ‘문전세재’이다. 진도아리랑에서 경상북도에 위치한 문경 조령산의 문경세재라는 가사는 1%도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본래 문전세재에서 문경세재라고 왜곡시키어 초, 중학교 음악 교과서와 중학교 국어 3-1 교과서에서까지 왜곡시키어 40여년을 의무적으로 가르쳐 오고 있다. KBS에서는 가끔 이 내용을 7공주라는 특별프로그램이나, 퀴즈 문제로 상기시켜서 방영하고 있다.

필자는 이토록 황당하게 왜곡된 사실을 논증하려 자료를 찾아 헤매다 진도를 남쪽으로 8km 지점 대곡산에서 ‘문전세재’라는 고개를 33년 만에 찾아내고 4-50여년 막혔던 고개를 실제로 넘어 보았던 것이다.

자신의 고장에서 고유하게 전래되어온 문화



아리랑의 첫 소절 ‘문경세재’라는 왜곡을 ‘문전세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과서에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장 이름으로 보내었으나, 교육부에서는 ‘문경세재’라는 가사는 이미 1930년에 레코드에 취입 됐었다고 사실도 아닌 허위의 답변을 보아야 했다. 이러한 논쟁은 장기간이 될 것이고 전문 학자들이 ‘세미나’를 거듭해야 하기에 ‘광주아리랑축전’ 때마다 이 문제를 위한 세미나의 고정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역시 주장하는 국악학자에게 초청장을 세미나 때마다 매회 발송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전세재인가?’ ‘문경세재인가?’ 토론의 진위는 이미 민요의 가락 속에 존재하여 있고, 가사 자체의 내용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 있다. 국악학자는 교과서 수정이 늦추어질수록 자신들의 명예에 곤혹을 치러야 하는 일만 남는 것이다.

‘진도아리랑’과 ‘광주아리랑’

가 훼손되고 특정지역에서 오히려 비아냥거리 는 소리로 들려온다면 응당 이 지역에 속하여 있는 해당 시 군에서는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 함에도 외면하며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고 있다.

오랜 세월 그 지방 사람들의 회노애락의 생활 속에 흐르고 있는 노래마저 훼손되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것인들 온전하겠는가?

진도군에는 진도아리랑 보존회도 있고 20여년 전부터 진도아리랑의 보존 사업을 진행하여 왔었다. 그러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내용 그대로 CD를 제작 배포하는 등, 진도 주민들은 보존회에서 오히려 진도아리랑을 팔아먹었다고 속닥거리는 일이 있다.

보통 감각으로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러한 딱한 일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광주시 강운대 시장이 알게 되어 진도 아리랑이 제 자리에 놓여지도록 힘쓰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강운대 시장은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진도아리랑은 진도군 광전마을 뒷산에 문전세재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는 만큼 광주시가 주최하게 되는 ‘광주 세계아리랑 축전’을 통하여 진도

“광주 아리랑은 본래부터 전래된 이미 정해진 아리랑이다”

광주아리랑 작품의 선정은 음악전문가 중에서도 작곡을 전공한 사람들의 감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 2013년 2회째 광주 아리랑 축전에 사용될 아리랑은 2012년 1회 행사 때 사용한 아리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전래된 것을 권하는 내용 역시 뜬금 없이 심사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말한다. 광주아리랑축전 행사의 성격을 모르고 타 전문가들이 갑 낚라 대추 낚라하는 것은 행사의 핵심 주제를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광주시는 서남해안을 아우르며 아시아 문화수도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광주 아리랑’ 가사에서 ‘문전세재’의 가사가 들어있는 아리랑을 꼭 부르도록 하여 전라도 지방의 잊어버린 언어와 잊어버린 그들의 가락을 돌려놓아야 한다.

광주시장은 범상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일도 이를 소중하게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깊은 안목과 용기가 있기 때문이라. 이는 한글 창제정신과 같이 위대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하기에 가능할 것이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부, 전국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는 8월부터 ‘2013년 전국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5천명과 취약집단·가정폭력 피해자 등 2천860명을 포함한 7천860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조사와 심층 조사로 진행된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3천500명과 취약 집단(아동·청소년, 여대생, 장애인, 이주여성 등)·성폭력 피해자 등 3천530명을 포함해 모두 7천3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심층 조사 형태로 시행된다.

“ 자작나무에서 자란 천년차가버섯 99.5% ”

차가버섯 음료

(주)씨엔씨 종합유통 (주)차가월드 광주·전남 총판

NAVER 검색창에 <http://www.chagablack.com> 검색 을 쳐주세요.

차가 chaga black tea 블랙티

차가버섯~ 이제 간편하게 드세요!

차가블랙티는 북위 45도 시베리아의 바이칼호 등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러시아 최상급 차가버섯에서 추출한 웰빙음료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차가버섯의 영양 그대로를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차가버섯 99.5% 추출물 이외 그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 차가블랙티는 우리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시켜주는 21세기 신이 내려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대리점 모집

영업사원 모집

·(주)씨엔씨 오시는 길·

SBS TV **정글의 법칙**의 개그콘서트

KBS **스타일**에서 국민만 아는 그 차가버섯

문의 062.351.0046~8